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6호 2014년 7월 1일(화)/계간

발행인 · 안병환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실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2면 축 사
이사장, 총장, 경대수 의원, 학생회장

5면 Campus News
신입생 입학식
안병환 총장 학생들과 소통 캠페인 펼쳐
중간고사 '초콜릿 이벤트'

6면 Campus News
제 2대 캠퍼스 안전 순찰대 발대식
제 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7면 Campus News
중원대, 美 · 英 명문대 방문

8면 Campus News
사회봉사단 발대식 개최
지역 어르신을 위한 '치매 위험군' 선별검사

9면 Campus News
개교기념 행사 대신 '세월호 희상자' 추모
지역초등학교 '블루존 캠페인'

10면 Campus News
이주 · 다문화 통합연구 선도
육군학교 학 · 군 제휴 업무협약 체결

11면 Campus News
전국 최초 융합 창업 보육센터 선정
"태권도경호학과
국제대학 에어로빅스축제 5관왕"

12면 Campus News
"한민구 전 합참의장,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예방"
'SBS 닥터이방인' 중원대 촬영 방문
제 5기 홍보대사 · 개교 5주년 축하인사

13면 Campus News/Opinion
재난관리시스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언

14면 5th Anniversary
개교 5주년 '학생' 인터뷰

15면 5th Anniversary
개교 5주년 '교수님' 인터뷰

16면 5th Anniversary
학교생활 만족도

17면 5th Anniversary
젊어진 괴산의 변화

18면 5th Anniversary
중원대 5년의 추억 2009~2014

20면 Culture
현명한 캠퍼스 커플되는 법

23면 Column
제 2기 언론 장학생 발대식
'축시' 연극영화학과 교수 신현수

24면 Wish of tree (소원의 나무)
중원 전교생 소원나무 캠페인 참여

중원 개교 5주년 기념

祝 辭



친애하는 교수님, 직원 선생님,
중원의 미래를 밝혀줄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 중원대학교 개교 5주년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원대학교는 종단 대순진리회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해원상생의 가르침을 구현하고자 높은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 대학입니다. 또한 성(誠), 경(敬), 신(信)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세계인, 창조적인 문화인" 육성을 교육 실천의 지표로 삼아,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참된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원대학교는 5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국내의 그 어떤 대학도 흉내 내기 어려울 정도로 괄목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지난 2009년 개교 첫해, 신입생 220명을 시작으로 하여, 2014년 올해 1,200명의 신입생을 유치하였고, 더불어 사회과학대학, 이공대학, 보건대학, 예체능대학 등 4개의 단과대학과 항공학부 및 대학원을 설립하여 편제정원 5,000명 규모의 중견대학으로 놀라운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친환경 그린 캠퍼스 구축을 비롯하여, 전국 사립대 10위안에 드는 장학금 제도, 국제화 선도대학으로서 미국의 전통 사립명문 미네소타대학교, 130년 역사의 영국 노팅험트렌트대학교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공대로 인정받는 중국 칭화대학교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인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 뒤에는 안병환 총장을 비롯하여 교수, 직원선생들이 일심 단결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임을 알기에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원대가 이곳 괴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 관계자분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충북도민의 성원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원대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더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대학은 더 이상 바깥세상과 독립된 상아탑으로 안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 도래, 승자독식과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난 가중, 고령화 시대의 가속화 등은 미래의 삶을 더 불확실하게 만들며 사회적 갈등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무리한 경쟁과 취업이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는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였고, 과다경쟁과 이데올로기의 상실 속에서 교육의 참된 가치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대학의 기본에 충실하라

이렇듯 어두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중원대학교가 세계 일류 명품대학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첫째 “대학의 기본에 충실하라”입니다. 대학의 기본이란,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국제적 수준의 연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연구 시스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잘 정비된 교육, 연구, 행정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학생, 직원, 교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할 때 가능하고, 더불어 요즘처럼 극심한 대학 구조조정의 혼돈과 입학정원 감소로 인한 위기상황에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상생의 조직문화

두 번째로 “상생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 구글, 디지털 시대를 이끈 스마트 폰의 애플사, 혁신을 통해 일류 자동차 회사로 거듭난 토요타 등 성공한 기업들의 배후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사로운 감정을 통한 반목과 불신은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구성원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어주십시오. 우수한 조직문화는 대학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며 구성원 개개인의 최고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

끝으로, 평화, 평등, 인권, 인류애의 수호성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교육이고, 교육의 목적은 인간적인 사람을 만드는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중원 구성원 여러분들은 인성의 덕목위에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깨닫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을 이해하고 배움의 기쁨과 보람을 일깨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중원대학교의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의과대학 설립, 도서관 및 체육관 건립, 대학 캠퍼스 확장과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등 대학 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니 중원가족 구성원 모두는 화합과 상생의 도를 실천하여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중원대학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중원가족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당부 드리며, 오늘 뜻 깊은 개교 5주년을 자축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5. 6

대진교육재단 설립자 / 이 사 장



총장 안병환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총장 안병환입니다.

풍성한 5월의 푸르름이 더해가고 있는 오늘은, 중원대학교가 개교 5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오늘의 영광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본교를 방문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중원대학교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학교를 통해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해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및 종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비약적인 학교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교수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중원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원대학교는 2009년 5개 학부 260명의 학생으로 개교한 이래 5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명품/명문대학으로서의 체계를 구축하였고, 미래지향적 학과신설과 증원을 통한 양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원대학교의 명성은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율 전국 사립대학 7위, 학생 1인당 교육비 전국 사립대 15위, 대학총예산 대비 도서 구입비 전국 2위, 1인당 교원확보율 100% 등 학생교육에 대한 지표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명문 미네소타주립대학과 중국의 세계적인 청화대학 등 세계 우수대학과의 실질적인 학술교류는 우리 중원인이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원대학교의 훌륭한 교수진은 각자의 영역에서 두드러진 연구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그 시너지를 더해가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글로벌 사회를 잇는 진정한 글로벌 명품/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중원가족 여러분!

작년 우리 대학은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와 대학경쟁력 강화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중원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는 자체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명품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입증했고 이는 중원대학교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중원대학교의 새로운 5년과 1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나침반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원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개교 5주년은 우리 대학의 지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자축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뤄놓은 발전과 성과에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모든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경쟁 속에서 대학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과거 학문의 상아탑이였던 대학은 교실에서의 학문적 성취를 넘어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대학은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이에 저는 총장으로서 우리 대학이 5년뒤, 10년뒤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대학을 만들고자 중원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 완성

둘째, 올바른 인성교육과 교양 · 전공교육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교육시스템 완성

셋째, 중원대학교만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대학의 브랜드화

넷째, 모든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심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완성

이상으로 앞으로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목표설정을 넘어 학교 운영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학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일 것입니다. 저는 처음 총장직을 맡으면서 가슴에 새긴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마음과 도전정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확고한 비전과 계획으로 모든 것에 도전하는 도전정신일 것입니다. 오늘 개교 5주년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비상하는 중원대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진정으로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명품/명문 글로벌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중원대학교의 개교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5. 6

중원대학교 총장 안 병 환

5th Anniversary
중원대학교 개교 5주년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세계 속의 명품대학으로 우뚝 서고 있는 「중원대학교 개교 5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북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국회의원 **경 대 수**

-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풍초등학교 18회 졸업
- 청주중, 경동고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9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 제21회 사법시험 합격(1979년)
- 사법연수원 11기
- (현)제19대 국회의원(충북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현)새누리당 충북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군 당협위원장

먼저, 개교 5주년이 되기까지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안병환 총장님을 비롯한 중원대학교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 개교한 중원대학교는 차별화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 우리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교육원과 최고경영자 과정을 출범하는 등 최고대학으로서의 면모로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고시설의 캠퍼스, 우수한 교수진, 창의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중원대학교는 최근에는 '이주·다문화 통합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우리지역 등의 다문화 가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나눔을 실천하는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원대학교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더욱 사랑받으며 대한민국의 중원으로서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글로벌 일등 명품대학'으로 도약·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개교 5주년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중원가족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중원대학교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중원대학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원대학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학생회장 **신 광 철**

사랑하는 중원대학교 학우 여러분, 존경하는 교수님과 교직원 선생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개교 5주년을 맞아 총학생회 회장으로써 축사를 쓰게 된 신광철입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훌륭한 인재를 탄생시키고 있는 중원대학교의 개교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9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나의 모습과 시간이 흘러 2014년 총학생회장 그리고 졸업을 준비하는 4학년이 된 나의 모습을 보며 지난 개교 이래 학우들과 선후배, 동기들이 웃음과 눈물이 함께 어우러졌던 중원대학교가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개교 이래 중원대학교 눈부신 발전은 총학생회장으로써 자랑스럽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학생들의 실질적 진로와 관련된 교육, 대학생들의 기본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대학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한 대학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가야할 길은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극심한 경쟁 구조, 공부가 자신의 꿈을 찾고 행복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것이 아니라, 성적서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비정상적인 사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소모적인 경쟁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곳 중원대학교가 그 시발점이 되어 경쟁사회가 아닌 공존하는 사회,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차세대 리더가 나오는 중원대학교로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대학교 학생들은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원대학교가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날 수 있도록 멋지고 튼튼한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입니다. 중원대학교의 발전은 학생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중원대학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중원대학교 개교 5주년은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10주년 아니 100주년에도 제가 축사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학년도 중원대 신입생 입학식 가져!

학사 1,079명, 석사 30명 등 총 1,109명 입학!



▲ 중원대는 3월 3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에서 2014년도 신입생 입학식 가졌다. 안병환 총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는 3일(월) 대강당에서 재단 및 대학 관계자, 신입생, 학부모 등 2,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다. 입학식은 학사행렬 입장으로 시작해 국민의례, 학사보고, 입학허가 선언, 내빈소개, 대표선서, 장학보고, 중원특별장학증서 및 상장수여, 이사장 격려사, 총장 입학식사, 축사,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중원대는 2014학년도에 항공학부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를 개설해 미래 항공분야를 선도할 20명을 비롯해 학사과정 1,079명, 석사과정 30명 등 총 1,109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안병환 총장은 환영사에서 "미래를 위한 원대한 꿈을 설계하고 그 꿈이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는 중원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에 근본을 둔 참된 지성인과 글로벌 스탠다드 미래형 인재를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2014학년도에 입학한 중원대학교 신입생 전원은 입학금 전액과 4년간 생활관 이용료를 50% 장학 혜택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충북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한편 2014학년도 중원대학교 전체 수석은 항공운항학과 최지훈 학생이 차지해 대진교육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으며 차석은 항공운항학과 이현진 학생이 영예를 안았다. 총장상은 남궁예나(의생명공학과), 박태준(법학과), 소지현(신재생에너지학과), 이도경(레저스포츠학과), 김보원(간호학과) 학생이 수상했다.

이번 신입생 중에는 지난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챔피언인 마야 예어(23)가 컴퓨터시스템공학과에 입학해 총장 특별장학금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개교 5주년을 맞이하는 중원대학교에 참석한 주요 내빈과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이제 중원대가 전 분야에서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충북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나아가는 기분이다"라고 평가했다.

안병환 총장과 함께하는 소통 캠페인 펼쳐!

매월, 학생 찾아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 마련!



▲ 안병환 총장과 '총장님과 함께하는 중원사랑 이야기' 이벤트 행사에 참가한 중원대 학생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이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기 위한 작은 이벤트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 부터 '총장님과 함께하는 중원사랑 이야기-함께해요 중원!' 이라는 주제로 소통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약 2,50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반적으로 총장이라는 직위가 대학 구성원들에게 권위로 둘러싼 벽처럼 느껴져 소통을 막아온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권위'를 깨기 위해 안병환 총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안총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자들이 직접 준비해 온 따뜻한 유자차와 비타민을 직접 나누어 주었다.

첫번째로 선택한 소통의 주제는 '건강'이다. 중원대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생 생활을 하고 있어 자신들의 건강과 소통하지 않는것 같다는 이유로 정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안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학생활을 처음하는 신입생들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들을 계획"이라며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매월 중순 총장이 직접 준비하는 소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다양한 소통 방법을 구상해 실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홍보대사(회장 명영호)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메시지가 담긴 간식을 전달하고 있다.

"초콜렛 먹고 중간고사 파이팅하세요!"

중원대학교 홍보대사 '가람'이 4월 16일~17일 이틀에 걸쳐 '중원사랑 간식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본 이벤트는 작년에 이어 재학생들의 학업 의욕상승을 위해 격려 메세지와 함께 소정의 간식 을 전달하는 이벤트다.

이번 이벤트는 300여개의 간식과 함께 홍보대사들이 직접 독서실을 방문하여 공부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간식을 받은 일본어학과 최운규 학생은 "시험기간이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간식을 받으니 기분도 좋고, 더 열심히 하고싶다."며 "홍보대사들이 이렇게 학교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 보기좋고, 이 이벤트가 홍보대사들의 전통으로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정명준 기자 pmjbks@naver.com

중원대 캠퍼스와 괴산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중원대학교 제 2대 캠퍼스 안전순찰대 발대식 가져!





▲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학과장 박현준 교수)는 4월 1일 오전, 안병환 중원대 총장과 김수룡 괴산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2대 캠퍼스 안전순찰대 발대식을 가진 후 중원대 본관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경찰행정학과 학생회장인 이관식 학생(경찰행정학과 2)이 김수룡 괴산경찰서장으로부터 캠퍼스 안전순찰대 활동에 필요한 야광밴드와 경광등을 받고 있다.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학과장 박현준 교수)는 4월 1일 오전, 안병환 중원대 총장과 김수룡 괴산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원대학교 동본관PT룸(Presentation Room)에서 제 2대 캠퍼스 안전순찰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괴산 경찰서가 경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원대는 물론 괴산군의 범죄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작년 9월부터 시작해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중원대학교 캠퍼스 안전 순찰대는 괴산경찰서 현역 경찰관과 함께 경찰의 역할 중 하나인 방범활동을 미리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한편 이번 발대식에서 김혜인(경찰행정학과 3), 이소희(경찰행정학과 2) 학생이 김수룡 괴산경찰서장으로부터 제 1대 캠퍼스 안전순찰대 활동에 대한 감사장을 받았다.

괴산 경찰서 김수룡 서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에서 충북이 지리적으로 중요하고 그 중 중원대가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격려했으며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은 "중원대와 괴산 경찰서가 서로 협력해 안전한 캠퍼스, 안전한 중원대, 안전한 괴산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인사말을 했다.

중원대 간호학과 제 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가져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중원대학교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가 두 번째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E-Hall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안병환 총장, 충북간호사회 회장, 괴산군 보건소장을 비롯한 의료보건대학 관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점화를 시작으로 나이팅게일선서, 총장식사, 의료보건대학장격려사, 충북간호사회장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임상실습을 앞둔 예비 '나이팅게일' 25명은 등불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힌 가운데 나이팅게일의 뒤를 이어 자신도 사람들을 성심껏 돌봐주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서했다.

김미예(3학년) 학생은 "아직 배울 점도 많고 부족하지만 환자들에게 한 발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설레인다."는 감정을 전한 뒤 "앞으로 나이팅게일처럼 많은 이들의 다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김미예 학생은 충북간호사회 간호사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최소윤 기자 jd2326@naver.com



▲ 중원대학교가 4월 16일 E-hall에서 간호학과 3학년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한 가운데 안병환(가운데)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원대-몽골국립대 신재생에너지연구 MOU 체결

몽골 국립대 총장 갈트바야 중원대 방문, 지열냉난방시스템 견학



▲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과 몽골국립대학교 갈트바야 총장이 3월 35일 오후 교무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와 몽골국립대학교(총장 갈트바야)는 25일 오후 중원대학교 교무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연구소 공동설치 등을 담은 연구 및 교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안병환 총장과 갈트바야 총장을 비롯한 양교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업무협약식에 앞서 갈트바야 총장은 중원대가 운용중인 세계 단일건축물 최대 지열냉난방시스템을 견학하고 캠퍼스 주요 시설을 둘러보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원대학교와 몽골국립대는 연구와 학술 교류는 물론 신재생에너지연구소를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교의 교수들과 석·박사 학생들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연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안병환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의 신재생에너지 연구는 물론 실질적인 연구성과들이 나와 대한민국과 몽골 양 국가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갈트바야 총장은 업무협약을 마치고 "중원대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대학"이라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

몽골국립대는 1942년 몽골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설립되었으며 약 2만명의 학부학생과 3,500명의 석박사 학생이 재학중이며 1,000여명의 교수들이 강의중인 몽골 최고의 대학이다.

중원대, 美 · 英 명문대 방문 이어져!

영국 노팅엄트렌트대학, 미국 아카디아대학 국제교류처장 일행 교류협의!



▲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이 3월 19일 오전 영국 노팅엄트렌트대학 안젤라 브라운(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학과장을 비롯한 국제교류 관계관들의 예방을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미국 아카디아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워렌 하퍼 박사가 중원대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명문대 국제교류 관계자들이 폭넓은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 잇달아 중원대학교를 방문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중원대는 3월 19일 영국 노팅엄트렌트대학교 안젤라 브라운씨와 국제교류 관계관 3명이 방문했으며 지난 3월 13일에는 미국 아카디아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일행이 중원대를 잇따라 찾았다.

이같이 해외 명문대학들이 중원대를 연이어 방문하고 있는 것은 중원대가 개교이후 보여준 글로벌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확인하고 연구와 학술교류는 물론 현지 대학의 한국어학당 개설과 교환학생, 어학연수프로그램 진행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방문한 노팅엄트렌트대학 관계관들은 안병환 총장을 예방하고 이공대학과 인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중원대 각종 실험실습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각종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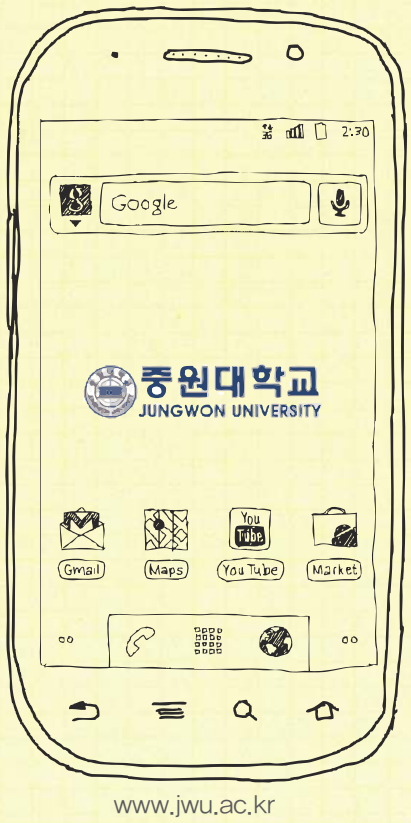
13일 방문한 미국 아카디아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워렌 하퍼 박사는 직접 중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갈등 해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적용과 영향들'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지는 등 중원대와의 교류협력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최근 해외 대학의 잇단 중원대 방문은 중원대가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진데 기인한 것도 있지만, 최근 안병환 총장이 추진하고 있는 '체·덕·지'와 '인성'을 기본으로한 신개념의 대학교육정책이 해외 대학들에게 신선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원대는 이같은 글로벌 대학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국가의 명문대학에 방문·홍보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졸업생 취업률이 1위인 대학으로 졸업생의 97.7%가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거나 인턴 사원으로 채용되는 명문대학이다. 특히 전 세계 산업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은 정평이 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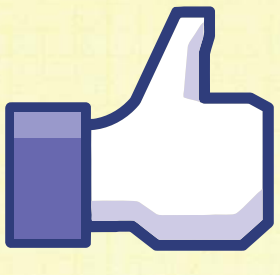
아카디아 대학교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미국 북부 지역의 일류 대학들과 순위를 나란하고 있으며 명망이 높은 프린스턴 리뷰에서는 아카디아 대학교를 최고의 북동부 대학 중 하나로 꼽고 있다.



www.jwu.ac.kr

중원대학교에 대해 알고 싶다구요?
SNS를 이용해 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https://www.facebook.com/Jungwonuniv
https://mobile.twitter.com/Jungwonuniv
http://me2day.net/paolim
flickr http://flickr.com/photos/jungwonuniversity

안 송 미 thdalland@naver.com

중원대, 사회봉사단 발대식 개최

지역사회와 나눔 배려를 실천
소통과 상생의 장 조성





▲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가 본격적인 사회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17일 사회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 중원대학교 사회봉사단이 4월 30일 첫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괴산 칠성면 갈은 구곡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중원대학교는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에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봉사단 발대식을 4월 17일에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에는 안병환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학생 봉사단, 재학생 500여명과 괴산자원봉사센터(이주미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봉사단 위촉 및 교육코디네이터(괴산자원봉사센터 한유미)의 봉사단 교육 시간을 가졌다.

중원대학교 사회 봉사단은 이미 둥글레, NON라는 자원봉사 동아리로 진행되던 소규모 봉사활동을 좀 더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외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봉사단이다.

앞으로 중원대학교 사회봉사단은 괴산 지역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 사회복지단체,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을 찾아 전국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병환 총장은 "학생들은 물론 본교 구성원 모두가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해외까지 봉사활동을 전개해 인류사회에 사랑을 나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학교 사회봉사동아리 NON은 전경련 대학생 사회봉사단에서 최우수동아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어르신! 치매 예방하세요!

중원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치매 위험군' 선별검사 실시



▲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는 4월 28일 중원대학교 개교 5주년과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주관하는 '작업치료 주간'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괴산중앙시장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행사를 가지고 있다.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학과장 박경영 교수)가 중원대학교 개교 5주년과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주관하는 '작업치료 주간'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괴산중앙시장과 괴산노인회관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행사를 가졌다.

괴산장날에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충북광역치매센터의 인증을 받은 중원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직접 선별검사를 진행했으며 괴산장을 보러오신 지역 어르신 200여분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치매선별검사인 MMSE 검사는 "올해는 몇 년 입니까?"같은 간단한 질문을 시작으로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자녀 및 집)를 기억 할 수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과 함께 스마트폰 검사앱을 통해 손쉽게 치매의 위험도를 판별할 수 있으며 작업치료학과 교수의 상담도 같이 받았다. 한편, 중원대 작업치료학과는 작업치료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4월 30일과 5월 1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중원대학교 소극장에서 '장애인권 영화제'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채도선(74, 괴산군 거주)씨는 "나이가 들으면 건강에 염려가 많이 가는데 특히 암 같은 신체적 질병보다도 치매와 같은 정신적 질병이 더 예민해진다"며 "병원에서 몇 번 받았던 진료와 비슷해서 신뢰가 갔고, 다행히 아무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한시름 덜었다."라고 말했다.

작업치료학과장 박경영교수는 "이번 치매선별검사는 충북광역치매센터와 우리 학교의 MOU를 통해 치매선별교육을 받은 학생들로만 실시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으므로 괴산군 주민들이 다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MMSE 선별검사는 치매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 어르신과의 간단한 상담을 거쳐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로 중원대 작업치료학과가 괴산장날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괴산군의 경우 60대 이상의 어르신인 약 1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점차 치매 환자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작업치료학과는 본 행사뿐만 아니라 4/30, 5/1일 양일간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중원 소극장에서 열었다.

중원대, 개교 기념행사 대신 세월호 희생자 추모



▲ 5월 1일 오전 11시, 중원대학교 학생회관에 마련한 분향소에서 신광철(의료정보행정학과 4) 총학생회장과 학생대표단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다.

총학생회 캠퍼스 분향소 설치, 세월호 희생자 애도 동참

중원대가 1일 개교 5주년 기념과 축하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진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 애도와 무사귀환을 바라는 행사를 가졌다.

중원대학교 총학생회(회장 신광철, 의료정보행정학과 4) 주관으로 열린 이날 애도행사에는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학생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안산 단원고 출신 재학생 8명이 참석해 후배들의 명복과 실종된 후배들의 무사귀환을 빌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캠퍼스 분향소에서 열린 애도행사를 마치고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학생대표는 충북도청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향소를 방문하고 조의를 표했다. 중원대학교 분향소는 5월 1일부터 8일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초등학생과 함께한 블루존 캠페인!!

산업디자인학과, 괴산 추산초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펼쳐

중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학과장 안조근 교수)는 4월 18일 괴산 추산초등학교(교장 김범수)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루존 캠페인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의 사각지대에 벽화를 그려 넣어 낙후된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블루존 캠페인'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안조근 산업디자인학과장과 산업디자인학과 권민철 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17명이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추산초등학교의 자랑인 느티나무를 모티브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디자인'을 주제로 학교 벽면에 벽화를 그렸다.

이른 아침 도착한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과 자원봉사자의 벽화 밑그림 작업을 시작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오후무렵 이 소식을 전해들은 추산초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이번 봉사활동에 손길을 보탰다. 캠페인 소개 및 벽화 작업 안내를 받은 후 역할을 나누어 벽화 도색 작업을 경험해보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오후 6시까지 강행된 고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봉사', '나눔', '사랑의 실천'을 몸소 체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단합하여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다.



▲ 중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4월 18일 괴산 추산초등학교(교장 김범수)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루존 캠페인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가지고 함께 참가했던 추산초등학교 학생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안조근 산업디자인학과장은 "이번 블루존 캠페인 벽화 그리기 행사를 통해 중원대학교가 지역사회,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고 사회봉사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어 학생들은 물론 우리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지역학교를 밝고 희망찬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6일 출범한 '중원대학교 사회봉사단'의 첫번째 대외행사로써 좋은 출발의 의미로 평가받고 있다.

중원대, 지역 교육청과 손잡고 글로컬 인재 양성!

충북 제 2권역 글로컬 브릿지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5월 7일 오전 11시, 중원대학교와 음성 · 진천 ·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교무회의실에서 충북 글로컬 브릿지 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중원대학교는 5월 7일 오전 음성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진천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충북 제2권역(음성·진천·괴산·증평) 글로컬(글로벌+로컬의 합성어) 브릿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컬 브릿지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중원대는 앞으로 음성·진천·괴산·증평 교육지원청과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이중언어능력과 잠재력을 적극 계발하기 위한 인성리더십 여름방학 캠프, 지역사회 어울림 체험프로그램, 바이링걸 이문화 교류프로그램, 해외 문화탐방 및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참가 대상은 충북 제2권역 소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이며, 희망자 중 이중언어가 가능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적별로 고르게 선발할 예정이다.

중원대 안병환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 가족과 문화속에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컬 브릿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원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교육지원청 이상준 교육장은 "다문화학생의 잠재능력을 적극 계발하고, 이중언어 환경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중원대, 이주·다문화 통합 연구 선도!

'중원대학교 이주 다문화 통합연구센터' 개소식 가져

중원대학교는 4월 10일 오전 11시(목) 대학 잉글리쉬홀(E-hall)에서 다문화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갈 '이주·다문화 통합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이규필 교육장, 괴산경찰서 김수룡 서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홍혁표 과장, 충북교육청 신현대 장학관을 포함해 지역 다문화관련 기관 관계자, 교수 50여명과 재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주·다문화 통합연구센터는 중원대가 표방하고 있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고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곳으로서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 2세들의 교육과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지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안병환 총장은 센터 개소 인사를 통해 "중원대가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개소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규필 괴산증평교육장은 격려사에서 "다문화는 이미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점이며 신속한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의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센터 개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임 정명희 이주·다문화 통합연구센터장은 "전국적인 다문화 현상의 트렌드와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나눔을 실천 하는 연구 거점기관으로 양성하겠다"며 "올해 다문화 부모교육과 탈북민 멘토링 사업에 집중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 괴산, 증평지역의 다문화 인구는 약 1,150명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250명에 다다르며 매년 20%의 증가율을 보여 이번 통합연구센터 개소로 인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정명준 기자 pmjbks@naver.com



▲ 10일 중원대학교 잉글리쉬홀에서 중원대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주·다문화 통합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제 2기 언론장학생 발대식

JUNGWON REPORTERS

지난 4월 9일 오후 중원대학교 컨퍼런스룸에서 언론장학생 2기에 뽑힌 4명과 함께 중원대학교 언론장학생 'JR(Jungwon Reporter)' 발대식을 진행했다.

언론장학생 2기는 최소윤 국장을 중심으로 정명준, 정회리, 안송미 학생이 1년 동안 활동한다. JR은 앞으로 취재나 기획기사를 통해서 학교 홍보를 활발하게 할 예정이다.

정회리 기자 hr411@naver.com



▲ 중원대학교 홍보실 이세우실장(앞줄 왼른쪽 여섯 번째)과 제2기 언론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9일 발대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원대-충북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학으로서는 충북광역치매센터와 첫 파트너쉽!



▲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과 이상수 충북광역치매센터장은 3월 10일 오후 5시 학술 및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는 3월 10일 오후 5시, 중원대학교에서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이상수)와 학술 및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안병환 총장과 이상수 센터장(충북의대 교수)과 양 기관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협약체결에 따라 향후 양기관은 ▲국가치매관리사업 지원 ▲학술교류 및 학생교육을 위한 교류 ▲학생 임상실습교육 지원 및 수련활동 프로그램 진행 지원 ▲교육자료 및 기술 상호교류와 연구 지원 ▲교육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활용 협력에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중원대는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충북광역치매센터와 파트너쉽을 맺었다. 협약식에 앞서 충북광역치매센터는 오후 4시부터 중원대 의료보건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선별 검사 교육 및 대학생 파트너 사업 소개'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중원대-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군제휴 업무협약 체결

올해부터 중원대 재학생 육군 군장학생 모집 및 교육



▲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과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은 3월 7일 오전 11시 ,학군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는 3월 7일 오전 중원대학교 교무회의실에서 육군학생군사학교와 '군장학생 교육 및 학군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안병환 총장,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학군교 참모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원대학교는 올 해부터 육군 군 장학생을 모집하고 교육할 수 있게 되고 학생군사학교는 기간 간부의 중원대학교 학위 취득과 장학금에 대한 사항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양기관은 학·군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연구과제 연구·개발·수행하고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에 상호 협조하면서 중원대학교 교수와 육군학생군사학교 교관요원간의 교환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협약은 상호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대학과 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활성화하고, 군의 발전 및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등 각 분야의 공동노력과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안병환 총장은 "중원대 재학생이 국가관과 풍부한 인성을 겸비한 우리 군의 핵심 인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원대학교, 전국 최초 융합창업보육센터 선정

전국 최초 융합창업보육센터 선정!

중원대학교가 중소기업청의 지원 아래 융합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한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정화)으로부터 2014년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의 최종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무려 2억 원의 지원비를 받아 융합의 산실을 짓게 되었다.

현재 충북지역에서는 세명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충북도립대 등 총 12개의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율이 4.3%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동안 충북의 바이오산업 발전축인 북부지역의 제천 한방산업을 세명대의 창업보육센터가, 남부지역의 옥천 의료기기산업은 충북도립대 창업보육센터가 각각 창업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유기농산업의 발전축이라 할 수 있는 괴산, 증평, 음성, 진청의 중부권역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없어서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큰 차질을 빚고 왔다.

이번 중원대학교의 융합창업보육센터가 선정됨으로써 충북 바이오산업이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원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는 타 학교의 센터들과는 달리 BT와 IT의 기술융합을 특화한 전국 최초의 융합창업보육센터로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센터는 현재 유기농제품 관련 기업체 16개소가 입주하여 창업보육 중에 있으며 1924m² 의 연면적에 20개 보육실을 리모델링해 본격적인 창조경제를 견인할 농공상 융합산업 분야의 창업보육활동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 융합전문가 박광봉 교수와 2명의 융합전문가를 비롯한 창업보육 전문매니저 7명이 융합비즈니스의 진수를 보여줄 전망이다. 중원대학교 융합창업보육센터는 2020년까지 유기농산업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융합비즈니스 창업의 중심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위해 △BIT 융합 유기농산업 아이템 창업 △융합 신재생 에너지 기술창업 △협업비즈니스 모델 창업 △학생 창업 조기 정착 △해외마케팅 연계 창업 등 5대 전략과제를 설정,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센터 선정에 큰 역할을 한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한기봉박사는 "이번 융합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융합의 신실을 짓게 됐다"며 기대와 포부를 말했다.

충북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중원대학교에서 설립하게 된 융합창업보육센터는 미래성장가능성이 다분한 인재를 발굴함과 동시에 세계를 선도할 융합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남과 더불어 앞으로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전문적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관련 기업과의 연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학협력단 단장 한기봉_ 공학박사

태권도경호학과 2014국제대학에어로빅스축제 5관왕!



태권도경호학과 태권도 시범단 선수들이 5월 14일 열린 2014 국제대학에어로빅스축제에서 태권에어로빅 참가 전 종목에서 우승을 하며 5관왕에 등극했다.

남자 개인전, 여자 개인전, 남녀 2인조 페어, 6인조, 단체전 종목에 참가한 10명의 학생들은 첫 출전 전 종목 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

시범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고송 학생은 우승 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소감을 말했다. “대회 준비를 하며 지칠 때마다 대회 다음날이 스승의 날이니까 그 어떤 선물보다 좋은 결과를 선물해 드리자고 후배들을 다독이며 힘을 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승할 수 있던 것은 시범단 모든 선수들이 무대를 즐겼던 것이 큰 힘이었다. 사실 대회 준비를 하며 규격에 맞는 장소가 없어서 운동장에서 대략적인 대형만 맞춰보고 타 대학에 가서 연습을 하고 앰프도 없어서 핸드폰에 스피커를 달아 연습하기도 했지만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은 것 같아 기쁘다.”

중원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올해 신설됐으며, 3월 중순부터 대회준비를 시작해 짧은 기간에 이룬 쾌거이다. 태권도와 에어로빅이 만난 태권에어로빅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최천 교수의 지도와 에어로빅 국가대표 출신 곽애영 교수,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감독으로 있는 최동성 교수의 영향이 컸다.

2014국제대학에어로빅스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사)한국에어로빅스건강과학협회가 주최하며, 한국, 일본, 중국의 대학생 에어로빅스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국제행사이다.

최소윤 기자 jd2326@naver.com





▲ 태권도 경호학과 최천 교수와 고송학생이 우승 트로피와 상장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민구 전 합참의장,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예방 !



▲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이 3월 12일 오후 중원대를 예방한 한민구 전 합참의장과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항일 의병장 청암 한봉수 선생의 손자이며 충북 청주고와 육사(31기)를 졸업하고 사단장,수방사령관,육군참모총장,합참의장 등 군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날 환담에는 김영환 부총장, 이세우 홍보실장, 조현천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이 배석했다.



▲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이 3월 20일 오전 중원대를 예방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과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정보병과 출신으로 합참 정보생산처장, 정보사령관, 합참 군사정보부장,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겸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등을 지냈다. 이날 환담에는 김영환 부총장, 강윤중 교무처장, 장지홍 국제교류원장이 배석했다.

탤런트 진세연양 안병환 총장 예방!

중원대학교 개교 5주년 축하 메시지 남겨





▲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이 3월 31일 오후 지난 2월부터 중원대에서 촬영중인 SBS 드라마 '닥터 이방인' 여주인공 진세연양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진세연양은 안병환 총장에게 중원대학교 개교 5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환담에는 김영환 부총장과 진세연양의 기획사 관계자가 배석했다.





제 5기 홍보대사

"중원대학교 개교기념일을 축하 합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제언

방재안전공학과 교수
박 민 규



지난 4월 16일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우리나라 전체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수습이 한창이던 5월 2일에는 서울 상왕십리역에서 지하철 추돌사고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5월 19일에는 지하철 금정역 폭발사고, 5월 22일에는 노량진역 감전사고 그리고 5월 26일에는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화재 사고 등 지난 한 달여 동안 공공시설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이 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에도 작년에만 청원, 청주지역에서 불산누출, 디클로메탄누출, 염소가스누출 뿐만 아니라 오창산업단지에서의 황화가스 누출 등으로 노동자 200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1000명이 긴급대피하는 등 연이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문제가 된 바 있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것으로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일명 1:29:300법칙이라고도 한다. 이는 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월호 참사가 중상자 발생에 비견할 수 있다면 이후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고는 29명의 경상자로 비추어진다.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경미한 사고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300명의 잠재적 부상자가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지난 5월 25일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미래사회 희망이 안전하고 여유로운 생활로 제시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 재조명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는 일반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 수습 4단계로 분류되는데, 예방과 대비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대응과 수습은 사고발생 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선 유출 사고와 같이 이제 재난은 다양화, 복합화, 대형화되고 있어 체계적 준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된 재난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많은 문제점을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 안전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여 진흥해 나가야할 부서 내에 안전관리 업무

크고 작은 사건 발생 재난 및 안전관리 개선 필요

안전관리체계 강화위해 주요 시행부서로부터 독립

가 부속물처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에 건설진흥과 시설안전이 함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가스 등의 공급기능과 안전규제 기능이 함께 있다. 그 결과 각 부처의 “부속업무”인 안전규제기능이 “주요업무”인 산업진흥기능에 밀려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주요 시행부서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과거 환경부 독립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70년대까지 환경업무는 개발담당 부서의 고려사항 중 하나여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환경관련 기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환경부가 개발진흥 담당부서에서 분리된 이후이다.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 운영중지가 이루어진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된 이후였다. 전력공급을 주업무로 하는 부처로서는 안전을 이유로 발전소 운영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지역의 방재역량이다. 대표적인 예로 충북의 대부분의 군들은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지만 개별적인 소방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곳이 많으며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장비 및 인력이 수도권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상당한 지역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보여진다. 주5일 근무 등으로 관광인구의 유동성이 높고, 낙후된 시군이라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공장들이 어김없이 몇

지역의 방재역량 강화 현장주의 시스템 마련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 재난 수습지원 베테랑 양성

개 이상 있다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안전관리시스템의 규모가 해당 지자체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실패로 안전취약 지역이 만들어지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정부정책방향의 문제점으로 인해 세월호와 유사한 대형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보다 커지게 되는 것이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선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의 방재역량 강화로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현장위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발생시 초동대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상황과 재해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소방서 등의 기관에 실질적인 재난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체계적으로 생활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평소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교육과 훈련을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평상시 안전에 대한 관심과 교육, 훈련이 사고발생시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안전이 정부차원의 관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국민의 안전 생활화, 체질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학계, 학교, 관련단체, 언론 등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통해 안전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 못지않게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업무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가의 재난상황발생시 안전관리를 EAP(Emergency action plan), 민간기업 및 기관의 재난상황시 안전관리를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라고 한다. 안전한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출려면 EAP 등을 수행할 정부의 방재안전직 등의 전문직 공무원이 대규모 충원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BCP를 훈련받은 전문인력이 기업체에 충원될 필요가 있다. 정부 및 기업은 재난 유형별 전문가를 확보한 후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재난 수습지원의 베테랑으로 양성해야 한다. 채용된 인력이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에 전념하는 조직문화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 재난안전 또는 방재안전 관련학과의 진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에서의 전문적인 교육 및 연구를 통해서만 각종 방재기술 개발 및 재난대응기술의 시스템화 뿐만 아니라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시작된 재난 및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이 앞으로 재난에 강한 안전한국이 실현되는 계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개교 5주년 기념 총장님 인터뷰 – 취임 후 쉼 없이 달려온 안병환 총장의 여정을 엿보다

"좋은 품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성이야 말로 성공적인 미래의 원동력"



성실, 경건, 신념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주도 할 글로벌 인재 육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진 중원대학교.
글로벌 마인드 확산을 위해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작지만 강한대학'을 만들겠다는
중원대학교의 안병환 총장을 만나본다.

Q. 작년 첫 취임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A. "중원대학교의 잠재역량을 알리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학교 홍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시일을 가리지 않고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나 모임에 집중적으로 참석해 우리 중원대학교의 잠재역량이나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는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보다도 중원대학교의 잠재력역량이나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Q.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드는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 합니까?

A. "글로벌 대학, 자급자족형 대학"

글로벌 도약과 자급자족형 대학이 되는 것이 그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자급자족형 대학이란 학교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심신단련과 훌륭한 사회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우선 글로벌 도약을 위해 다수의 대학 방문과 학생교류 및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한 해외에서의 인식이 좋아져 외국 대학들의 실습기지를 중원대학교에 만들고 싶다는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대학의 경우 중원대학교를 가기 위한 반이 따로 구성되어 편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Q. 지난 1년 중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십니까?

A. "학생과 소통하는 1년"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특히 인조잔디구장, 펜스설치 등 학생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학생들의 모든 요구를 한 번에 수용하지 못하여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 바꾼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Q. 그렇다면 지난 1년 중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A.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목표에 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못 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대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학교에 행사나 활동이 있을 때 학생들 여러분들도 보다 더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 우리 공동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더 나은 중원대학교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학생들에게 원하는 인재상이 있으신가요?

A. "인성을 갖춘 중원인"

1년 전에도 인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인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안정적 사고와 객관적 균형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자신감이 되어 자신의 미래에 힘과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인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만사가 형통하며, 시야가 보다 넓어집니다. 기업에서도 인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은 한 순간에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통해 학생들이 인성을 먼저 갖추어 주변의 기회와 환경들을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성을 얻기 위해선 독서와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로 읽고 들음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추길 바랍니다.

Q. 하루 일과를 끝내시고 쉬실 때는 무엇을 하시나요?

A. "하루 한 시간의 자기시간 갖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무 외 시간은 직무시간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 등산을 좋아합니다만 아직 시간이 나지 않아 못하고 있지만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저만의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Q. 총장님도 교수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의 경험을 살려 학생들에게 좋은 레포트를 쓰는 팁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A. "논리적 전개와 일관성 있는 글"

좋은 레포트의 밑거름은 아이디어가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잘 드러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틈날 때마다 자기생각을 객관화 시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을 많이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논리적 전개를 하는 과정에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독서뿐 아니라 토론, 강연듣기, 대화 등을 통해 직·간접 배경지식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주장이란 자기 주관적 생각을 얼마나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긍정적 내면의 대화, Positive Self-Talk"

요즘 학생들이 자신감이 없어 보여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기 내면과의 대화(Self-Talk)를 한 번 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등,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자기대화를 한 번 시작 해보셨으면 합니다. 긍정적 자기대화를 토대로 10년, 2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볼 때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차고 가슴벅찬 설레임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인터뷰 정리 : 정명준, 정회리, 최소윤

개교 5주년 기념 특별 기획 – 개교와 함께한 교수님들과 학생들

2009년 새내기 그들은 지금_학생

개교와 함께 입학해 군복무 등을 마치고 지금까지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중원대학교 최고 학번인 09학번 학생들을 만났다. 이들은 유령도시와 같았던 학교에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 가장 변화라고 했다. 대부분 취업을 앞둔 졸업반 학생들이라 취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며, 취업과 자기계발에 관한 과목이나 특강을 많이 개설해 달라고 학교에 주문했다. 선배가 없는 이들은 졸업 후 탄탄한 위치를 확보해 후배들을 끌어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졸업 후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학창시절에 되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으라고 후배들에게 충고했다. 최소윤 기자 jd2326@naver.com

1. 2009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으시다면?
3. 입학 후 지금까지 학교에서 경험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다면?
4.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5. 향후 10년, 20년 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자신이 노력 하고자 하는 일은?
6. 향후 10년, 20년 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후배들이 졸업 전에 꼭 해봤으면 하는 것은?



의료공학과 **문경중**

❶여러 학과가 신설되고 그만큼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후배도 많아졌습니다.

❷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 취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큽니다.

❸엠티나 체육대회, 축제 등 학교와 학과 내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학생들 모두 잘 단결하여 재미있게 치러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 체육대회에 단결된 모습으로 학과생 모두 응원을 했고 많은 종목에서 우리 과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❹취업과 자기개발 등에 관련된 과목이나 특강들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❻후배들이 졸업 전에 과와 관련된 실습이나 인턴쉽 등에 많이 나가 관심분야에 대한 경험과 견문을 넓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❶5년 전에는 유령도시처럼 사람이 없어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인원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져서 너무 좋습니다.

❷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과 학과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❸크리스마스 때 아무도 없는 텅 빈 기숙사에서 컵라면 혼자 후루루짭짭하고 먹을때

❹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교내 인원에 비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❺09학번들에게는 선배가 없어 모든 도전들이 시련이었습니다. 이 시련이 후배들에게 되물림 되지 않도록 사회에 나가 후배들을 이끌어 주고 싶습니다.

❻후배에게는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친동생이었다면 “미친듯 놀아!”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전부 F학점 맞아도 최선을 다해 연애나 게임, 여행, 운동 등 다양한 경험을 전부 경험해보길 바랍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학과 **정승익**



사회복지학과 **신광철**

❶학생 수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어디를 가건 되게 한산하고 사람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총장님께서 학교 본관 앞에서 애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지금은 테라스, 본관 앞, 운동장 등 학교 곳곳에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❷4학년이다 보니 취업이 가장 고민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인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나, 취업이 되도 잘 할 수 있을까 등 취업에 관한 많은 고민들이 가득합니다.

❸저는 개인적으로 엠티가 가장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저희 과는 여러 사정으로 엠티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엠티의 재미를 모르는 상태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복학 후 첫 엠티를 갔던 그 날의 즐거움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평소에는 잘 볼 수없는 다른 학년 후배들과 다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요.

❹학교에 바라는 것은 아직 신생 대학이라 정책적인 부분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졸업기준 같은 경우는 학번마다 전부 달라서 자신들의 졸업기준을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에게 예민한 성적기준이나 장학기준도 바뀌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❺제가 좋은 직장을 잡고 그 직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학교는 지방대이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졸업생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거나 후배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 단단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면 힘이 되지 않을까요?

❻후배들이 했으면 하는 것은 뭐든 많이 경험해봤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다 자신에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취직한 후에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에는 그런 제약이 취업준비생이거나 직장인일 때 보다는 덜하니 많은 경험을 했으면 합니다.

제5호 2014년 7월 1일 화요일

개교 5주년 기념 특별 기획 – 개교와 함께한 교수님들과 학생들

2009년 새내기 그들은 지금_교수님

**개교이후 5년 동안 중원대학교와 함께 살아오신 교수님들을 만났다.
우리 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하신 교수님들은 260명이던 학생수가 3,000명으로 늘어나 캠퍼스에 활기가 넘치고, 학교의 인지도와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을 가장 큰 변화라고 입을 모았다.
교수님들은 스승으로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해 두려움 없이 도전할 것을 바라고 계신다. 교수님들께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다.**

최소윤 기자 jd2326@naver.com

1. 2009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으시다면?
3. 임용 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스승으로서 보람된 일이 있다면?
4.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5. 향후 10년, 20년 후 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신재생에너지학과
구자공 교수님

❶시설과 학생 수가 늘어나서 학교가 북적거리는 것이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❷지금은 아니지만 최근에 있었던 고민을 말씀드리면 신입생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입학 후 처음 강의를 들으러 올 때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이라면 이렇게 많은 담배꽁초를 버릴까요? 학교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피고 바닥에 버린 담배꽁초들로 바닥이 하얗습니다. 어떤 날은 눈이 왔었나? 싶을 정도로요. 캠퍼스를 보면 학생들의 수준이 보입니다.

❸보람된 일이라기보다 스승으로서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수업을 하러 강의실에 갔을 때 준비된 자세로 학구열이 가득한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그 순간이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학사과정에서는 교수와 함께 논문을 써서 등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13년 지도학생과 함께 논문을 올린 후 현재까지 4개 정도의 논문을 썼습니다. 제 지도학생들에게 1, 2학년 때는 논문형식으로 글 쓰는 것에 익숙해지고 3학년엔 기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복수전공을 한 뒤 4학년이 되면 본격적인 취직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과 함께 논문을 작성하고 올리는 것에 참으로 보람됩니다.

❹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교수는 혼자서 연구만 한다고 교수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교수는 학생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강의준비를 해 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예습을 해왔다는 이야기고 질문의 답을 얻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그것은 복습도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❺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구체화했으면 합니다. 구체화된 미래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 항상 노력하길 바랍니다. 구체화된 미래 외에 차선책을 세워두는 것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목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다음으로 생각해두었던 차선책이 있다면 좌절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법학과
김두년 교수님

❶개교초기에는 없던 건물들이 들어차면서 대학이 캠퍼스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개교당시 260명에 불과했던 학생들이 3,000명이 넘게 늘어난 캠퍼스에서 생활하면서 캠퍼스가 활기찬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산 읍내에도 저녁시간이 되면 불 켜진 상점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시내 어디를 가든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고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치킨 집, 피자 집, 롯데리아와 같은 젊은 층이 좋아하는 상점들이 눈에 뛰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❷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이 우리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거리입니다. 이제 곧 최고 학년이 되는 법학과 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학자로서의 후회 없는 마무리를 잘 하고 싶습니다.

❸중원대학교 개교준비를 끝내고 2009년 3월 2일 신입생 입학식을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괴산지역에 대학을 설립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축하는 분위기였어요. 대학에서도 괴산지역 노인들을 학교로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열어주며 화답했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대학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이라면 역시 201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4년간의 기다림 끝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졸업식장에 섰을 때, 아쉽기도 하지만 보람을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❹우리대학은 성 · 경 · 신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상생하는 세계인, 창조적인 문화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전 구성원은 건학이념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은 세계적인 명품대학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❺대학의 근본은 학생과 교수입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평생의 사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들은 연구에 몰두하고 실천하는 학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학생들의 사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수와 학생이 사제동행하는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방식품바이오학과

김도완 교수님

❶우리대학의 위상이라 생각합니다. 개교 초기 "중원대학교"라 하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고, 괴산에 있다고 하면 괴산이 어디 있냐고 되물어 보았는데 이젠 충청권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대학의 명성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대학은 훌륭한 캠퍼스, 전폭적인 장학혜택 등 여러 측면에서 빨리 안착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달라진 것은 괴산 및 충북 발전에 기여한 우리대학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대학이 괴산에 자리잡은 후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국책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유치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괴산군의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및 충북의 유기농특화도 선포에 우리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❷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에서 우리대학이 어떤 모습으로 특성화 및 자립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모델을 교과부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융합 · 창조경제에 적합한 학부제 시스템을 우리대학이 초기에 시행하였으나 언젠가부터 학과체제로 전환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 내년에 괴산에서 열려는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를 앞두고 유기농 인증 받은 식품을 관람객들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그 확산 속도와 지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고민입니다.

❸개교 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에서 한 할머니가 "내가 죽기 전에 대학문을 밟아 보는 구나" 하고 눈물을 보일 때 대학의 책무를 느끼게 되었으며, 첫 번째 입학식 때 강당이 너무나도 썰렁했는데 이젠 자리가 부족함을 볼 때 우리대학이 많이 성장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동절에 졸업생이 찾아 와서 전공과목이 직장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할 때 스승으로서 가장 큰 보람이 있었죠.

❹초대 교학지원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보직을 나름 열심히 수행한다고 하였으나 학부제, 인성 및 영어 교육, 특성화 등등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학생 수와 직원 선생님, 교수님들 숫자 모두 규모를 갖춘 만큼 주인 의식을 갖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❺꿈이 있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학교 성적이 사회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고,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보람이 기다릴 것이라 믿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전공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8학기 동안 한 학기당 한 가지씩이라도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수영, 여행, 등산 등의 취미나 특기를 정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면 대학생활 동안 5가지 이상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업치료학과

장지홍 교수님

❶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학생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캠퍼스에 학생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 학교가 굉장히 활기차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시스템들 역시 활성화되었습니다. 4개 학부에서 4개의 단과대 안에 33개의 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학과가 많아진 만큼 각 학과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으며, 교환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의 수 등 교내 구성원들이 다양해졌습니다.

❷고민이라기보다 어려운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작업치료학과 첫 4학년이 나옵니다.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은 졸업 전 국가고시인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학생들이 힘들어 하지 않고 즐겁게 공부하도록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 중입니다. 1회의 영향이 후배들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전원 합격을 기원해봅니다. 다음 어려운 숙제 중 하나는 국제교류원장으로서 맡은 일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환학생 그리고 졸업 후에도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교환학생과 관련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학생들이 중국대학이기 때문에 중국어학과만 간다는 선입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 뒤에는 보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❸학생들이 군대를 가고 졸업을 한 뒤에도 잊지 않고 연락이 오고 안부를 물을 때 가장 보람됩니다. 2009년 임용이 됐을 때 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던 저는 읍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냈었죠. 어느 날 어린이집 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신 이사장님께서 교내 복지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으로 현재는 어린이집이 생겨 교직원 자녀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되었죠. 아마 추운 날 저희 아이가 버스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리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러신건 아닐까요?

❹개교 후 첫 4년은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로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였습니다. 5주년을 맞는 이 시점은 나무를 심고 꽃을 피우려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교직원, 학생들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을 충분히 잘 해야 합니다. 서로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 져서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❺학교를 온실에 비유했을 때 최종적 목표는 튼튼한 묘목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튼튼한 묘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야망을 갖기 전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먼저 찾고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공부 뿐 아니라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보며 사회에 나갈 밑거름을 다져야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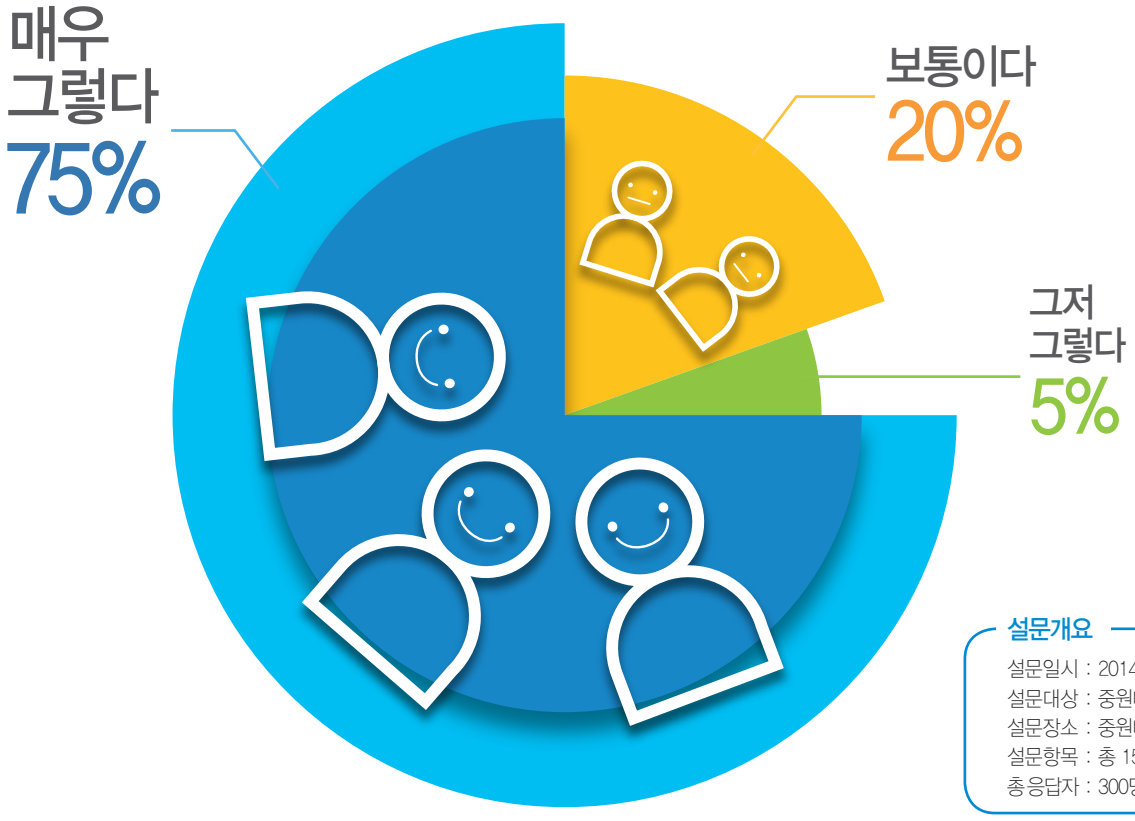
아름다운 중원인, 교수님

Thank you, profes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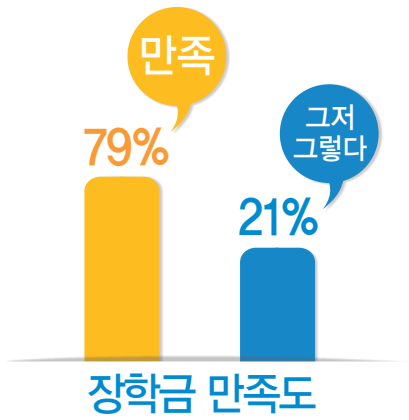
우리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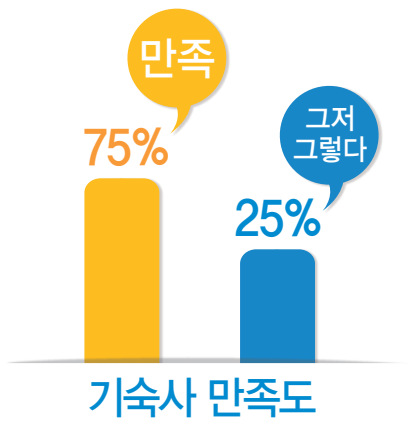
중원대학교는 5월 6일에 개교 5주년을 맞이했다.
5년 동안 중원대학교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을 했고,
이에 대해 300명의 학우들에게 몇 가지 학교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Q. 중원대학교의 인성교육이 향후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개요
- 설문일시 : 2014.4.3
- 설문대상 : 중원대학교 재학생
- 설문장소 : 중원대학교 캠퍼스
- 설문항목 : 총 15문항
- 총응답자 : 300명(무응답제외)





중원인성교육 만족도

중국어학과 12학번 임진희학생-"우리학교는 인성을 중요시 여겨 1학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중원인성교육을 실시했다. 처음에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 잘 듣지 않았지만 매주 다른 강사들이 와서 여러 분야의 강연을 해주시니 점점 흥미를 가지고 들었다. 강연을 통해 내 미래 설계에도 도움이 되었던 부분도 있었고, 예절교육이나 왕따 문제, 성폭력 등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게 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뮤지컬 갈라콘서트 같은 문화 공연은 지친 학업에 갈증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앞으로 1학년 후배들도 중원인성교육을 들으면서 인성까지 갖추어진 멋진 중원인이 되길 바란다."

식권제 도입 만족도

중국어학과 11학번 이승호-"1학년 때는 기숙사비와 학식비를 같이 냈다. 평소에 아침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끼 식사를 의무로 다 지불했다.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불만을 제기했고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군 전역 후 학교에 돌아오니 식권제가 생겨서 먹고 싶을 때 선택해서 먹고 식권이 부족할 때는 식권발매기에서 추가로 구매하여 먹을 수 있게 되어 돈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 좋다."

통학버스도입 만족도

영어학과 11학번 박민걸-"고등학교부터 꾸준히 하고 있던 알바가 있었는데 통학을 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데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와 보니 통학버스가 생겨 알바도 하고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사는 청주뿐만 아니라 충주, 천안, 오산, 동서울행 통학버스가 생겨 통학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앞으로 주말에 운행하는 스쿨버스도 더 많이 증편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만족할 것이다."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한국어학과 12학번 윤여준-"고등학교 때 축구동아리였다. 그래서 평소에 축구를 즐겨 했는데, 중원대에 입학 하고 나서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천연잔디라는 이유로 체전 때 외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의 건의로 작년에 풋살장이 만들어져, 지금은 유일한 내 취미인 축구를 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다."

기숙사 만족도

경찰행정학과 12학번 오은진-"중원대학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교생 기숙사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 다른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학점이 안 되서 원룸에 살거나 집에서 통학하는 데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고 한다. 반면에 중원대학교는 생활관규칙만 준수한다면 학생들 누구나 살 수 있다. 게다가 신설학교이기에 학교 시설도 깨끗하고 본관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다. 고등학교 진학카페에 들어가 보면 우리학교시설에 대한 호평이 가득하다. 또 이번 학기부터 신관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택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더 점점 발전 했으면 좋겠다."

장학금 만족도

신재생에너지학과 11학번 김효성-"우리학교 장학금이 충북에서 1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장학금혜택이 많아서 등록금 걱정을 덜게 되었다. 우리학교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하는 공모전이나 교내근로, 홍보대사, 언론장학생 등을 통한 소정의 장학금이나 용돈벌이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학교생활을 하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적어서 좋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학교이길 바란다."

많은 학생들이 중원대학교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장학금, 기숙사, 식권, 풋살장설치 등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환학생들도 점점 많아져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들이나 동아리, 수업에서 만나는 학생들도 영어나 중국어, 러시아어 등의 회화능력이 향상되고 있어 좋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이제 5주년 된 대학이지만 5년 동안 많이 발전했고, 학생들의 의견에도 귀기울여주는 중원대학교이기에 우리 학교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회리 기자 hr411@naver.com

젊어진 괴산마을 어떻게 변화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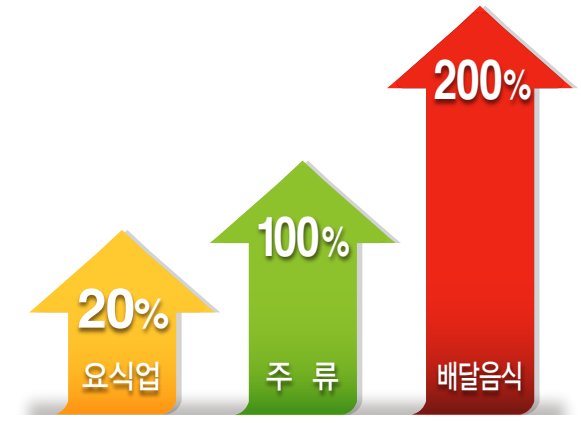
중원대학교는 오는 5월 6일 개교 5주년을 맞이한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3, 4학년들은 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많이 느낄 것이다. 현재 중원대학교는 친환경골프코스와 쾌적한 온천, 레포츠시설, 증축된 기숙사 등 '양궁 세계 챔피언 마야 예어가 선택한 대학'에 이르기까지 괴산의 교육-문화 중심지로 발돋움 했다.

특히, 중원대학교의 성장과 발맞춰 탈바꿈해 온 괴산마을의 변화를 빼놓을 수 없다. 괴산은 원래 조용한 시골마을이었다. 물론 지금도 시골마을인 것은 변함없지만, 유일한 대학가인 만큼 젊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괴산읍내는 위치 특성상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기를 독점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나름 맛있는 맛집이 많이 있고,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속속 만들어 지고 있는 익숙한 브랜드매장의 등장은 환영받고 있다. 갈 만한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유일한 햄버거매장 롯데리*는 항상 학생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생기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가게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젊은이의 사랑을 받는 봉구비*, 피쉬앤그*, 아이스크림매장(나뜨*), 생활용품매장(다이*) 화장품매장(더페이스*)등 예전에 없던 곳들이 생겨났다.

요식업 매출↑ 및 전통시장 새 단장을 통한 상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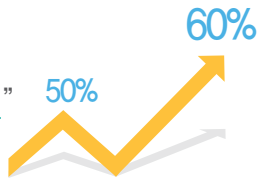
중원대학교 개교 이후, 괴산 시내에는 음식점을 포함한 주점이나 배달음식점 등 수많은 요식업체가 매년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요식업체들의 매출도 덩달아 증가했는데 음식점의 경우는 중원대 개교 전 보다 매출이 20% 가량 증가했으며, 주점은 100% 가량 특히 배달음식집의 매출은 200%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여 중원대의 개교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주점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중원대학교의 학기가 끝난 방학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의 이용이 감소하여 매출의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괴산전통시장의 경우는 2010년 11월 3일 리모델링을 통한 변신이 가장 돋보인다. 1년여 동안 17억여 원을 들여 1천770㎡의 아케이드를 설치, 우천에 관계없이 물건을 매매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던 간판을 LED간판으로 산뜻하게 정비했다.

또 전기, 소장, 통신시설 등도 일제히 정비해 사철 쾌적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변화를 통해 상인들은 현재 적게는 10%, 많게는 20~30% 이상의 매출이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괴산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이 50~60% 늘었어요"





괴산시외버스터미널은 1974년 준공해 40년이 넘은 시외버스터미널이다. 매표소에는 두분이서 번갈아 가며 운영을 하시는데, 중원대 개교 이 후, 이용객 수가 많이 변화되었냐는 질문에 "중원대가 생긴 후 이용객이 50~60% 정도 늘었어요." 라고 밝혔다.

학교가 생긴 후 괴산시외버스터미널은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터미널에서 가장 많이 변한 곳은 화장실이다.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시설이 낡아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다. 군은 2012년 4월부터 9개월에 걸쳐 이용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편의시설 중심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냉·난방 시설이 없는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해 대기실 옆에 냉·난방 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신축하고, 대기실 내 도색과 의자 교체, 집기류 정비 등 환경을 개선했다.

중원대학교와 시내를 잇는 '도로' 완공



중원대학교와 시내를 잇는 새 길 완공 또한 큰 변화이다. 기존의 중원대학교와 시내를 오가는 방법은 괴산교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3년, 중원대학교와 시내를 잇는 공사를 통해서 양 쪽을 오가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 이를 통해 내부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였으며 외부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괴산천과 새로운 길의 자연적 조화를 잘 이루었다는 점은 모두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정명준 기자 pmjbks@naver.com

중원대학교 5년의 추억

A history of the change in

JUNGWON

2009 ~ 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현명한 캠퍼스 커플 되는 법 어렵지 않아요~

(대학생들의 로망, Campus Couple)

CC를 하게 되면 분명 다른 연인들보다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나쁜 점들 또한 생겨날 것입니다. 20대가 만들어가는 수많은 관계 중 캠퍼스 커플이라는 특별한 인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정회리 기자 hr411@naver.com

캠퍼스 커플 되는 법!

먼저 캠퍼스 커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합니다. 학교는 넓은 것 같지만 굉장히 좁은 사회입니다. 두, 세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이미지가 잘못 잡힌다면 학교생활은 물론 연애전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옷은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도 대충하고 옷도 며칠을 돌려 입었는지 쾌쾌한 냄새가 난다거나 꾸겨진 남방을 대충 털어 입고 나온다거나 무릎 나온 츄리닝도 거리낌 없이 입고, 다 떨어진 삼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운명의 그 또는 그녀가 나타날지 모르니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행동해야합니다. 20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 활동, 동아리활동,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 열심히 해보세요. 다양한 인간관계일수록 인연을 만날 확률도 높아지고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다보면 당신의 매력지수도 높아져 더 멋진 상대방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캠퍼스 커플의 장점은?

첫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CC인 경우 수업을 같이 신청해서 수업시간을 곧 데이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과까지 똑같다면 전공과 교양을 모두 함께 들을 수 있죠! 두 번째로 평소 특별한 데이트 코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고 공부도 같이 하고 밥도 학생식당에서 먹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하고 엠티도 같이 가고! 학교 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특별한 데이트 코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 주말이나 특별한 날은 학교를 벗어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로 데이트 비용이 저렴합니다. 하루 종일 데이트 겸 학교생활을 함께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연스럽게 대화거리가 많아집니다. 아무래도 같은 환경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캠퍼스 커플은 다른 커플들에 비해 공감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캠퍼스 커플의 단점은?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지게 된다면 조금 전 장점이었던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라는 부분이 가장 곤란해집니다. 학교에 가면 수업시간, 학생식당, 동아리 등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그 뿐 아니라 주변에 같이 알던 사람들도 난감해져 커플의 친구였던 사람들은 커플 사이에서 불편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질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 생활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석을 못하거나 열정적인 태도를 안보였다면 연애하느라 정신없다는 비난의 말이 분명 나옵니다. 세 번째로 데이트가 단조로워집니다. 하루 종일 학교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수업 듣고, 밥 먹고, 과제하고, 도서관가고 매번하다 보면 지겨워집니다. 그러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 해도 반복된 일상에 익숙해져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이 귀찮은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를 넓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만약 단 둘이만 있기를 원하는 연인이 있다면 대학교 생활의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면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더라도 다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현명한 캠퍼스 커플 되는 방법!

현명한 캠퍼스 커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각자의 시간을 존중 해줘야합니다. 동기들끼리 술 한잔하러 간다, 과에서 단체로 MT를 간다고 하면 너무 자주 과하지 않다면 쿨하게 보내주세요! 대학교도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장소 중 하나이고 연애란 기본적으로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인을 묶어두지 마세요. 두 번째로 데이트는 단조롭지 않고 가끔은 캠퍼스를 벗어나세요. 한두시간 걷기도 하고, 오락실도 가보고, 아이쇼핑도 하고, 물론 학교 주변은 금방 익숙해지니 걷는 장소를 때때로 바꿔보고 괴산을 가끔 벗어나 데이트를 해보세요. 세 번째, 학점관리는 하면서 연애를 즐기세요. 한번뿐인 20대를 연애에 모든 것을 쏟아 그것으로 인해 졸업 후에 있을 취업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죠? 서로 노하우도 알려주고 진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장래를 생각해준다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맥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해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하며 아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맥이 많을수록 사회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애를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결혼을 할 때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CC

Campus는 대학, couple은 연인을 말하는 것으로 즉 'Campus couple (캠퍼스커플)'은 대학교 안의 연인 사이를 의미합니다. Campus Couple의 약자인 'CC'는 오랫동안 널리 쓰이고 있어 단 두 글자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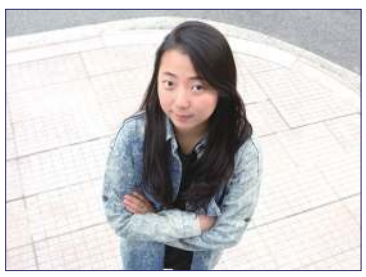
우리는 중원대학교

제 2기 언론장학생

JUNGWON REPORTERS

가장 빠른 정보 in JWU www.facebook.com/jwujr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10학번 최소윤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언론장학생으로 학교 홍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재학생 분들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학과 소식, 개인적인 소식 등 모든 이야기들을 언론장학생들에게 들려주세요^^

〈최소윤_사회복지학과 4학년, jd2326@naver.com〉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2기 언론장학생으로 뽑히게 된 영어학과 11학번 정회리입니다. 작년에 활동했던 경험들을 살려 이번 년에는 더욱더 풍성하고 학생들이 발간일을 기다리는 학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학보는 학생들의 의견이나 생각도 많이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리_영어학과 4학년, hr411@naver.com〉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언론장학생으로 뽑힌 영어학과 11학번 정명준입니다. 언론장학생 활동을 통해 중원대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알리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의견을 알려주셔서 학교가 쌍방향의 소통이 되는 장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명준_영어학과 3학년, pmjbks@naver.com〉



안녕하세요. 산업디자인학과 13학번 안송미 입니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 지도 모른다." 라는 명언을 좌우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도전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학보와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하도록 노력하는 언론장학생이 되겠습니다.

〈안송미_산업디자인학과 2학년, thdalland@naver.com〉

祝詩

□□□ ,□□□□ 中源
□□ □□ □□ □□ □□ □□ □□□□

그대, 아름다운 中源!
지금 다섯 살은, 이미 다섯 살이 아니다.
힘세고 키 큰 다섯 살,
이미 철들고, 착한 다섯 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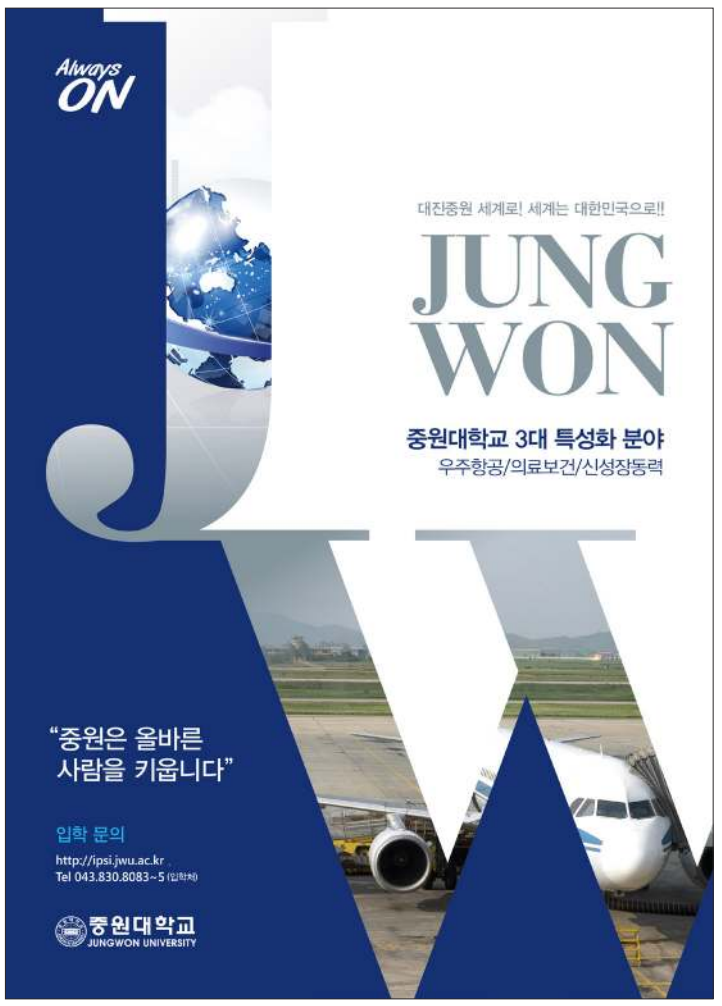
길고, 오랜 모진 忍苦의 시간,
힘찬 몸부림으로 마침내 크고, 착한 뜻 품고 세상에 나와
함께 같이 잘 살자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미래 희망의 건강한 씨앗을 뿌리는, 그대 아름다운 中源은
확실히, 이미 다섯 살이 아닌 것이다!

혼탁하고 어지러워 정신조차 차릴 수 없는 미친 세상일지라도,
절대 스스로 속이거나 거짓말 말고,
언제나 바른말과 착한 행동으로
누구에게도 원망사거나, 미움 받지 말라.
고마운 것 항상 잊지 말고
그저 누구라도 늘 지금처럼 잘되게만 하라!

그대, 아름다운 中源!
지금 다섯 살은 이미 다섯 살이 아니듯,
열 살도, 스무 살도, 오십 살, 백 살 때도 내내
더 힘세고, 더 철들고, 더 착하기만 하라!

그대, 아름다운 中源이여!.....

" 2014년 5월 中源大學校 개교 5주년을 기념하며..."
作 : 신현주(학생처장, 연극영화학과 교수, 시인)



제6호 2014년 7월 1일 화요일

소원의 나무

개교 5주년을 상징하는 다섯 손가락에
중원인의 바람과 응원이 모여 소원의 나무가 만들어 졌습니다.
무성한 위시트리에 나타난 중원인들의 희망 메시지들이
앞으로 10년, 15년이 될수록 더욱 성장하는 중원대학교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짜~잔! 엄청난 손가락을 자르고 붙인
정의의 멤버!



이렇게 쓰면 되나? 뭐라고 쓰지?



흣! 이정도야 껌이지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들을
빼곡 빼곡 적었어요!



"우리 학교의 실시간 뉴스! 공유하고 싶어요"
www.facebook.com/jungwonuniv
mobile.twitter.com/Jungwonuniv
me2day.net/paolim
flickr flickr.com.photos/jungwonuniversity
"언론정학생들에게 중원 소식을!"
www.facebook.com/jwujr